

제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글과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싶어서, (손가락 세 개를 펴며) ‘한글과 관련된 세 가지 오해’를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창제했다.’라는 오해입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언론 기관조차 ‘말’과 ‘글자’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말’은 음성 기호를 의미하고, ‘글자’는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세종대왕은 우리말이 아니라 우리 글자인 한글을 창제했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글이 세계기록유산이다.’라는 오해입니다. (자료 제시) 실제로 1997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기록유산은 ‘기록물’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것은 한글이 아니라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운용법 등이 적혀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인 것이죠. 그런데 한글 자체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으로 오인하여 한글의 탁월함을 설명할 때, (자료 제시) 이처럼 잘못된 내용을 언급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한글로 모든 언어의 발음을 적을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한글이 다른 문자에 비해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료 제시) 하지만 보다시피 국제음성기호를 기준으로 보면 한글로 기록할 수 없는 소리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모든 언어의 발음을 적을 수 있는 문자는 아닌 것이죠.

이러한 오해들은 우리가 한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닐까요? (자료 제시) 이 영상에서와 같이 다른 나라의 언어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로 한글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자인 한글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우리는 앞으로 한글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한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겠습니다. 제 발표가 한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발표 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으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 ③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를 다양한 일상적 소재에 비유하여 청중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발표에 활용하기 위해 모은 자료의 목록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우리말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표제로 한 신문 기사 ㉠
-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의 유네스코 누리집 게시물 ㉡
- 한글 창제 원리와 운용법의 우수성을 언급한 논문 ㉢
- 한글로 적을 수 없는 소리를 표기한 국제음성기호 목록 ... ㉣
- 해외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자라고 평가하는 동영상 ㉤

- ① ㉠은 말과 글자의 의미를 혼동하여 쓰는 사례를 언급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 ② ㉡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은 기록물임을 언급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 ③ ㉢은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한글 문자 체계의 탁월성을 언급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 ④ ㉣은 모든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 ⑤ ㉤은 다른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언급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3.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1: 한글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어. 그런데 국제음성기호와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 나중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봐야겠어.

학생 2: 수업 시간에 『조선왕조실록』도 세계기록유산이라고 배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록물 중에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이 더 있는지 조사해 봐야겠어.

학생 3: 이번 발표로 말과 글자의 의미를 구분하고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유익했어. 그리고 세 가지 오해 이외에 또 다른 오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어.

- ① ‘학생 1’은 ‘학생 3’과 달리 발표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발표 내용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학생 2’와 달리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과 관련된 대상을 떠올리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를 들으며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4 ~ 7] (가)는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찬성으로 참여한 학생이 교지에 실을 글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오늘 토론 논제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해야 한다.’입니다. 찬성 측 입론 후, 반대 측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생태법인은 인간 이외의 존재 중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멸종 위기에 놓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해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이에 찬성합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바다 환경의 악화로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각종 해양 쓰레기, 관광 선박의 위협, 어업 중 혼획, 해상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 등이 그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마리 내외가, 작년에는 16마리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개체 수는 100 ~ 120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한다면, 후견인을 통해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서식지 보호를 요구할 권리,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자연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하여 기존의 동물원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서도 자연물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환가누이강을, 스페인은 마르메노르 호수를 법인으로 인정했습니다. [B]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돌고래의 생존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바다 환경 개선, 생물 다양성 보존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태계 파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C]

반대 2: ㉠ 폐사한 개체 수에 대한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찬성 1: ○○대학교 돌고래연구소의 작년 보고서입니다.

반대 2: ㉡ 언급하신 모든 사례가 생태법인으로 인정된 것인가요?

찬성 1: 환가누이강과 마르 메노르 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대 2: ㉢ 생태법인으로 인정되면,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과다 번식하여 다른 어종이 줄어드는 불균형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찬성 1: 새끼 한 마리를 낳고 기르는 데 3년이 걸립니다. 과다 번식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자: 이제 반대 측 입론 후, 찬성 측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1: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법인이란, 법이 사회적·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인간, 기업, 재단과 달리 일정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D]

생태법인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제주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 자격을 부여한다면, 황새, 수달 등 다른 멸종 위기종에게도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국가와 기업의 사회 경제 활동이나 인간의 생계유지 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역 어민들은 돌고래 보호로 어업권이 규제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E]

또한 생태법인의 후견인 자격은 누가, 어떤 사람에게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생태법인이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강화하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찬성 2: ㉣ 자연환경보전법은 보호 대상에서 해양 생태계는 제외하고 있어,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반대 1: 자연환경보전법은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찬성 2: ㉤ 자연을 도구로 보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멸종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닐까요?

반대 1: 그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자연을 도구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생태법인과 관련된 이번 토론에서, 찬성 측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돌고래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고, 바다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태계 파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대 측은 사람과 달리 사회적·경제적 차원의 목적이 없는 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실적 측면에서 생태법인의 인정 범위 문제, 후견인 자격 부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역 어민들의 생계유지 활동부터 국가와 기업의 사회 경제 활동까지 위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토론을 보며 과거 천성산의 도롱뇽, 설악산의 산양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이 떠올랐다. 법원은 터널 공사, 케이블카 건설을 막기 위해 제기된 이 소송을, 동물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생태법인 인정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 토론을 본 A 학생은 생태계 위기를 걱정하면서도 동물에게 사람처럼 법인 자격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B 학생은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인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자연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생태법인을 인정하자는 관점과 생태법인의 인정이 사회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이 양립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통해 우려되는 점들을 줄여 나간다면,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의 <학습 자료>를 읽고, 4번과 5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 자료>

- **정책 논제의 입론을 위한 필수 쟁점:** 필수 쟁점으로 ‘문제의 심각성’,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을 들 수 있다. 찬성 측은 이를 입증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쟁점에 대해 반증한다.
- **반대 신문을 위한 고려 사항:** 반대 신문을 할 때는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고려해야 한다. ‘타당성’은 상대방의 주장, 이유, 근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공정성’은 정의롭지 않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지를, ‘신뢰성’은 인정할 만한 권위가 있는지, 자료 출처가 명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4. (가)의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에 대한 청중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찬성 1’은 발생한 문제 상황의 원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어.
 - ② [B]에서 ‘찬성 1’은 해결 방안과 실행 사례를 통해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어.
 - ③ [C]에서 ‘찬성 1’은 제시된 방안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을 언급하고 있어.
 - ④ [D]에서 ‘반대 1’은 상대방이 정의한 용어를 재정의하면서 찬성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 ⑤ [E]에서 ‘반대 1’은 상대방의 주장이 가져올 부작용을 들어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을 반박하고 있어.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폐사한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개체 수와 관련된 근거의 출처를 물어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다.
 - ② ㉡: 상대방이 근거로 말한 외국 사례가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물어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 ③ ㉢: 제주남방큰돌고래에 관심이 치우쳐 다른 종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를 물어 ‘공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이 언급한 법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 ⑤ ㉤: 인간 중심적 자연관으로는 생태계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다.

6. <조건>을 반영하여 (나)의 제목을 정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모두 드러날 것.
- 의인법을 활용할 것.

- ①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인간에게 생존권을 묻다
- 생태법인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 ② 제주남방큰돌고래보다 인간의 생계가 먼저다
- 인간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생태법인
- ③ 법인의 재해석으로 멸종 위기종을 웃게 하다
-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생태법인
- ④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
- 생태법인 논의에서 시작하자
- ⑤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다
- 멸종 위기종, 내버려 둘 것인가

7. (가)의 토론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문단에 찬성 측 입론에서 밝힌 내용을 두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 ② 1문단에 찬성 측 주장을 받아들일 때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고 있다.
 - ③ 2문단에 찬반 양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 논제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 ④ 2문단에 찬반 양측의 주장에 대해, 새로운 근거를 들어 옹호하는 학생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 ⑤ 3문단에 찬반 양측의 관점을 간추리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8~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상황]

- 자신의 관심 분야를 소개하기
- 관심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초고]

당신은 반려동물을 키워 본 경험이 있는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인구가 2010년 약 17.4%에서 2023년에 약 30%로 증가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과 관련된 말이 바로 펫코노미이다. ‘펫코노미(petconomy)’는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신조어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 또는 산업을 일컫는 말이다. 반려동물을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팜족’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나 간식, 장난감이나 편의 용품도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다.

실제로 반려동물 용품 매장을 방문해 보니, 요즘은 저렴한 대용량 사료보다 고가의 기능성 사료나 수제 간식이 인기가 많다고 한다. 또한 펫코노미는 서비스업 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미용실, 동물 병원은 물론이고, 반려동물 유치원이나 행동 교정 센터 등의 교육 시설,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카페나 숙박업소,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펫코노미는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펫코노미의 성장으로 반려동물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지만, 관련 용품이나 서비스의 고급화 경향으로 양육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육 비용 중 의료비는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한 번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다. 양육 비용의 지나친 부담은 양육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A] 펫코노미의 성장은 사람과 동물이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펫코노미의 성장이 단순히 경제 지표의 변화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비싼 사료나 간식만 사주면 안 될 것이다.

8.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에서 윗글에 반영된 것만을 고른 것은?

- ㉠ 펫코노미라는 용어를 분석하여 개념을 설명해야겠군.
 ㉡ 펫코노미의 성장을 보여 주는 서비스업의 종류를 열거해야겠군.
 ㉢ 반려동물 양육 포기 실태를 나타내는 객관적 수치를 활용해야겠군.
 ㉣ 반려동물 양육 비용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야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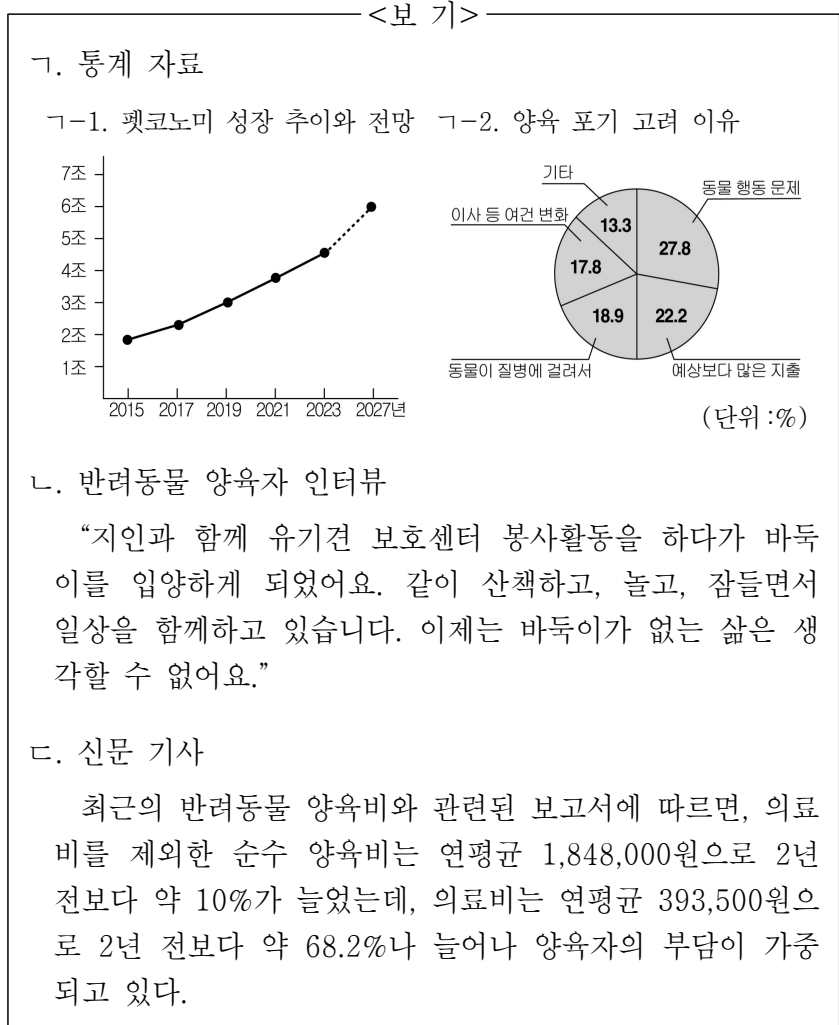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 다음은 선생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A]를 고쳐 쓴 것이다. 선생님이 제시했을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학자 피터 싱어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면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펫코노미의 성장은 사람과 동물이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이 단순히 경제 지표의 변화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비싼 사료나 간식만 사주기보다 양육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이다.

- ① 문단의 첫머리에 인용 표현을 활용하면 어떨까?
 ② 글쓴이의 견해를 드러내는 구절을 추가하면 어떨까?
 ③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면 어떨까?
 ④ 지시 표현을 활용하여 반복되는 표현을 대신하면 어떨까?
 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면 어떨까?

10. <보기>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고자 한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ㄱ-1: 펫코노미의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 주는 자료로 2문단에 활용한다.
 ② 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펫팸족의 실제 사례를 보여 주는 자료로 1문단에 활용한다.
 ③ ㄷ: 반려동물 양육 비용 실태와 그 증가 추세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3문단에 활용한다.
 ④ ㄱ-1, ㄴ: 펫코노미의 성장으로 반려동물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양육 포기를 예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2문단에 활용한다.
 ⑤ ㄱ-2, ㄷ: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반려동물의 양육 포기를 고려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3문단에 활용한다.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오면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으로, 음절 끝에서는 하나의 자음밖에 발음될 수 없다는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으로 인해 일어난다. 그런데 겹받침이 있다고 해서 항상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 값[갑], 뉘[늬]
(나) 앓는[안는], 흙냄새[흙냄새]
(다) 여덟아홉[여더라홉], 샅일[상닐]

(가)는 겹받침 뒤에 아무런 형태소가 오지 않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나)는 겹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흙냄새’에서 비음화가 일어난 것과 같이 뒤에 오는 음운의 종류에 따라 다른 음운 변동이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

(다)는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여덟아홉’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남은 자음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고, ‘샅일’은 자음군 단순화와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난다.

(라) 닭을[달글], 값이[갑씨]

(가)~(다)와 달리 (라)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고 겹받침 중 뒤에 있는 자음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된다. ‘값이’는 겹받침 중 뒤 자음인 ‘ㅍ’이 연음되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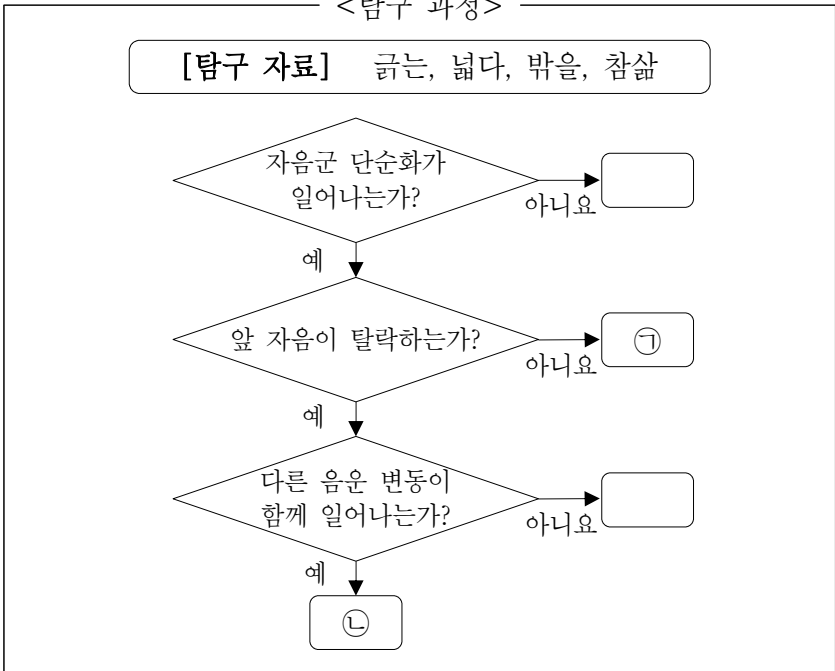
한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때 탈락하는 자음의 위치는 자음군에 따라 다르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ㄹ, ㄷ, ㅂ’은 ‘닭[닥], 삶[삼], 읊다[읍따]’와 같이 일반적으로 앞 자음이 탈락한다. 다만 ‘ㄹ’이 ‘읽고[일꼬]’와 같이 용언 어간의 받침으로 사용될 때,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뒤 자음이 탈락한다. 그 외의 겹받침은 ‘뭉[목], 외곶[외곶]’과 같이 일반적으로 뒤 자음이 탈락한다. 다만 ‘ㅌ’의 경우 ‘얹다[얹따]’와 같이 뒤 자음이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밟다[밟따]’의 활용형과 ‘넙죽하다[넙쭈카다], 넙둥글다[넙똥글다]’ 등 일부 단어에서는 예외적으로 앞 자음이 탈락한다.

(마) 많아[마:나], 끓이다[끄리다]

(마)는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여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ㅎ’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하여 ‘ㅎ’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구조 제약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 ② ‘ㅎ’ 탈락이 일어나는 조건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③ 겹받침 뒤에 아무런 형태소가 오지 않으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 ④ 같은 자음군이라도 조건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 ⑤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탐구 과정>을 수행한 결과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점]



- | | ㉠ | ㉡ |
|---|----|----|
| ① | 굵는 | 넓다 |
| ② | 굵는 | 밖을 |
| ③ | 넓다 | 굵는 |
| ④ | 넓다 | 참삶 |
| ⑤ | 밖을 | 참삶 |

13.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그뵈 善慧(선혜) 부텃고 가아 ㉠出家(출가)호샤 世尊(세존) 스기 슬벗샤디 내 어저씨 다섯 가짓 ㉡꾸물 꾸우니 호나흔 바르래 ㉢누브며 둘흔 須彌山(수미산)을 베며 세흔 衆生(중생)들히 내 몸 안해 들며 네흔 소내 히를 자브며 다스슨 소내 ㉣드를 자보니 世尊(세존)하 날 爲(위)호야 ㉤니르쇼셔

- 『월인석보』(1449) -

[현대어 풀이] 그때에 선혜가 부처님께 가서 출가하시어 세존께 사퇴기를, “내가 어제 다섯 가지 꿈을 꾸니, 하나는 바다에 누우며, 둘은 수미산을 베며, 셋은 중생들이 내 몸 안에 들며, 넷은 손에 해를 잡으며, 다섯은 손에 달을 잡으니, 세존님이시여, 나를 위하여 이르소서.”

- ①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② ㉡: 초성에 서로 다른 두 자음이 함께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수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 체언에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가 지켜졌음을 알 수 있군.
- ⑤ ㉤: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14. <보기>를 참고할 때, <조건>에 맞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관형사절은 관형어의 자격으로 다른 문장에 안긴문장이다.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 -던’으로 과거 시제를, ‘-는’으로 현재 시제를, ‘-(으)ㄹ’로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 다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인 경우에는 ‘-(으)ㄴ’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조 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관형사절을 각각 한 번씩만 사용할 것.

- ① 언니가 만든 선물을 은사이신 그분께 드린다.
- ② 그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밝은 미소를 지었다.
- ③ 내가 책을 사던 서점은 이제 완전히 문을 닫았다.
- ④ 집에 들어온 오빠가 한 말은 내가 자주 듣던 말이다.
- ⑤ 최근 출간된 소설 작품을 위주로 검색할 목록을 만들었다.

15. <보기>의 수업 장면을 바탕으로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생: 선생님, ‘불이 꺼져 간다.’와 ‘불이 꺼져간다.’ 중 띄어쓰기는 어느 것이 맞나요?

선생님: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함께 쓰인 문장이군요. 둘 다 맞습니다. 본용언에 본용언이 이어진다면 띄어 씁니다. 하지만 본용언에 보조 용언이 이어진다면,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에는 띄어 씁니다. 또한 의존 명사에 ‘-하다’가 결합한 보조 용언에서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도 띄어 씁니다.

[학습 과제] ㉠~㉤의 띄어쓰기가 적절한지 판단해 보자.

- 형이 나에게 책을 ㉠ 읽어 주었다.
- 친구가 동생에게 선물을 ㉡ 주고갔다.
- 이번 기회에 한번 ㉢ 덤벼들어보아라.
- 책을 ㉣ 읽어도보았으나 시간이 더디게 갔다.
- 그가 보낸 메시지를 보니 그가 ㉤ 올 듯도 하다.

	과제	적절성 판단	적절성 판단의 근거
①	㉠	적절함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적절함	보조 용언은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③	㉢	적절하지 않음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에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④	㉣	적절하지 않음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⑤	㉤	적절함	의존 명사에 ‘-하다’가 결합한 보조 용언에서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 띄어 쓴다.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질병에 걸리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약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약물이라 하고, 약물을 투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약제라고 한다. 약제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경구 투여형 정제제*, 경구 투여형 액체제, 주사형 액체제 등이 있다. 약제는 약효를 발휘하는 약물인 ㉠ 활성 성분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 약물과 혼합하는 첨가제인 불활성 성분과 함께 구성된다.

경구 투여형 정제제는 활성 성분과 불활성 성분을 혼합하여 압축한 알갱이 형태로, 약물의 쓴맛을 감추어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당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경구 투여형 액체제는 약물이 복용 가능한 용매에 녹아 있는 형태로, 약물을 녹이는 용매인 정제수와 복용의 편의를 위한 감미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사형 액체제는 약물이 무균 상태의 용매에 녹아 있는 형태로, 용매인 생리식염수와 항균 효과를 위한 항균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약물은 농도 구매*를 원동력으로 삼아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면서 체내에서 확산된다. 약물의 체내 확산 속도는 농도 구매가 크거나 물질의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확산 계수가 클수록 더 빠르다. 동일한 약물을 액체제와 정제제로 만들었을 경우, 액체제는 이미 용해된 상태이며 약물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정제제보다 확산 계수가 더 크다.

체내에 투여된 약물은 흡수 단계, 분포 단계, 제거 단계를 거치면서 이동한다. 흡수 단계는 체내에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단계이다.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비율을 생체이용률이라고 하는데, 약물을 정맥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정맥 주사는 투여된 약물 모두가 혈액에 도달하기 때문에 생체이용률이 항상 1이다. 하지만 경구로 투여하는 약물은 소화기관 등에서 약물 일부가 제거되는 소화통과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체이용률은 항상 1보다 작다. 예를 들어 약물 100mg을 경구 투여하였는데 생체이용률이 0.3이라면, 혈액에는 약물 30mg이 도달하는 것이다.

분포 단계는 약물이 혈액을 통해 체내 여러 조직에 분포하는 단계이다.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은 세포막을 통과하기 쉬워 체내에 넓게 분포한다. 분포 용적은 약물이 체내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을 혈장에 약물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혈장 약물 농도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혈액에 도달한 약물이 30mg이고 혈장 약물 농도가 5mg/L라면 약물은 체내에서 6L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거 단계는 약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단계이다. 약물이 신체에서 제거되는 속도인 청소율이 높으면 약물이 제거되는 속도가 빠르다. 청소율은 단위 시간당 약물이 제거되는 혈장의 부피로 나타낸다. 약물의 적정량이나 투여 간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 생체이용률, 분포 용적, 청소율을 고려할 수 있다.

혈액까지 도달한 약물 중 일부는 간, 장 등 신체 여러 조직에서 대사*되어 약효를 더 강하게 내는 ㉡ 활성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이들은 다시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낸다. 이러한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효는 일반적으로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장과 같이 체내에 있는 조직은 시료를 직접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한다. 왜냐하면 혈장 약물 농도가 증

가하면 목표 조직인 심장에서의 약물 농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약물은 목표 조직에서는 약효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는 약효와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약물이 목표 조직 외의 다른 조직에 분포하면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 약효가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

* 정제제: 둥글넓적한 원판이나 원뿔 모양으로 만든 약제.
* 농도 구배: 두 지점 간의 농도 차이.
*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성질.
* 대사: 약물이 화학적으로 변형되는 과정.

1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내에 투여되어 혈액에 도달한 약물은 여러 조직에 분포한다.
 - ② 경구로 투여되는 약물은 항상 투여량의 일부만 혈액에 도달한다.
 - ③ 농도 구배가 작은 경우에 약물은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이동한다.
 - ④ 혈장 약물 농도보다 체내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
 - ⑤ 주사형 액체제의 약물은 경구 투여형 정제제의 약물과 달리 용매에 녹아 있다.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 ② ㉠은 ㉡과 달리 불활성 성분을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
 - ③ ㉡은 ㉠과 달리 약제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다.
 - ④ ㉡은 ㉠과 달리 간이나 장 등에서 대사를 거친 상태이다.
 - ⑤ ㉡은 ㉠과 달리 목표 조직에서 약효와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18. 윗글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
|---|----|----|----|
| | ㉠ | ㉡ | ㉢ |
| ① | 많을 | 길기 | 길 |
| ② | 많을 | 짧기 | 길 |
| ③ | 많을 | 짧기 | 짧을 |
| ④ | 적을 | 길기 | 길 |
| ⑤ | 적을 | 짧기 | 짧을 |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동일한 치료 목적을 가진 서로 다른 약물 ㉠~㉢로 만든 약제를 투여한 후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때 투여한 약물량은 모두 12mg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약제 유형	활성 성분		불활성 성분 일부	혈장 약물 농도 (mg/L)
	약물	생체이용률		
㉠ 정제제	㉠	0.25	당류	3
㉡ 액체제	㉡	0.75	정제수, 감미료	1
㉢ 액체제	㉢	1	생리식염수, 항균제	2

→

- ① ㉠은 ㉡에 비해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일 것이다.
- ② ㉠은 ㉢과 달리 체내 흡수 단계에서 초회통과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③ ㉡은 ㉢에 비해 체내의 더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
- ④ ㉠은 ㉢과 달리 복용의 편의를 돕는 성분이 포함된 경구 투여형 약제일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활성 성분을 녹이기 위한 불활성 성분이 포함된 약제일 것이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히스테레시스(遲滯)는 ‘혈장 약물 농도가 최대치에 도달한 시간(㉠)’보다 ‘목표 조직에서의 약효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약물이 약효를 발휘할 목표 조직까지 분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위 그래프처럼 나타난다.

- ① 약물이 목표 조직 외의 다른 조직에 더 분포한다면 ㉡에서 약효의 최대치는 낮아지겠군.
- ② ㉡에서는 ㉠에서와 달리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가 혈장 약물 농도보다 더 높겠군.
- ③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같은 약물로 만들었다면 정제제는 액체제보다 ㉠과 ㉡의 간격이 더 넓겠군.
- ④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확산 계수가 큰 약물은 확산 계수가 작은 약물보다 ㉠과 ㉡의 간격이 더 좁겠군.
- 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혈액에서 목표 조직으로 빠르게 분포되는 약물은 느리게 분포되는 약물보다 ㉠과 ㉡의 간격이 더 넓겠군.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계는 **넉넉지** 않아도 뜰이나마 풍족하니
가난하게 살아도 **서러운 줄** 모르리다
동쪽 햇볕 따뜻하고 북쪽 바람 온화하여
지팡이 바빠 짚고 동쪽 언덕에 비겨 서니
금사(金絲)는 버들 그림자요 설색(雪色)은 매화로다

[A]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며 지저귀고
꽃은 비 온 후에 웃음을 머금었다
사계절 온갖 경치 실컷 다 본 후에
이봐 아이들아 서쪽 밭에 일이 있다
따비 호미 다 제각각 챙기거라

[B] 갈면서 깊어지며 여러 이랑 마친 후에

[B] 광주리 둘러메고 뒷산에 올라가니
[] 어린 취 못다 크고 고사리 다 살졌다

[C] 꺾으며 담으며 바구니 못다 차서
봉우리에 올라앉아 재미가를 길게 불러
울려퍼진 소리에 가슴속이 상쾌하니
[] 무우대(舞臺)에서 바람 켜들* 이보다 더하겠는가
잠시 산책하고 누추한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문에서 기다리고 새 술은 익어 있다
한잔 또 한잔 마신 후에 낚싯대 비껴들고
낚시터를 찾아가니 **미끼 없는 낚싯대**에 고기가 다 물었다
어조(魚鳥)도 내 뜻 알아 의심을 아니하네

[D] 넓디넓은 물결은 밤낮을 쉬지 않거늘
물가에서 시 짓고 언덕 올라 **휘파람** 불며
하루 또 하루 산수에서 소일하니
[] 산수의 즐거움을 나밖에 뉘 아는가
(중략)

흰 갈대 헤치고 붉은 여뀌 깔고 앉아
국화를 잔에 띄워 밝은 **달** 맞으니
끝없는 맑은 경치 나 혼자 즐기노라
북풍이 으스스하고 **흰 눈**이 흩날리니
언덕과 골짜기 경요굴*이 되었거늘
눈썹을 찡그리며 시를 읊으니 시흥(詩興)이 더 새롭다

[E] 사계절 경치가 다 제각각 재촉하니
[] 게으른 이 몸이 언제나 한가할까
기쁨이 다하니 근심도 많이 난다
변방의 병사는 언제쯤 돌아오며
임금은 **정사를** 어찌 **돌보시는**가

— 정훈, 「수남방옹가」 —

* 무우대에서 바람 켜들: 명예와 이익을 잊고 지낸다는 공자와 관련된 고사.
* 경요굴: 옥으로 만든 굴.

(나)

늙고 병든 이 내 몸이 **죄명**조차 지중하니
극중일월(棘中日月)*에 일만념려(一萬念慮) 찬 재* 같다
그러고 창오산* 먼 구름에 피눈물은 무삼 일고

<제3수>

세상에 괴로운 일 밤잠 없어 큰 병일다
늙은이 예상(例常) 일을 내라고 면할쏘나
즉금(卽今)에 임 생각 자별(自別)하니 잠든 후나 잇자울까 하노라
<제17수>

죽어도 못 잊을 일 군친(君親)의 은혜로다
부모가 날 사랑하시기는 예사거니와
임금이 **자식같이** 보시던 **은덕**은 더욱 망극하여라

<제19수>

새 짐승 중 못된 것은 **두루미** 네로구나
겉풍신* **헛소리**로 사람을 어리온다
아마도 주인을 위하여 때때 우는 닭만 못할까 하노라

<제27수>

섬은 **조개** 등만 하고 **바다**는 일배수(一杯水)* 같아
비록 그러하나 이 내 몸을 용납하였으니
아마도 **세상의 넓은 곳**은 예뿐인가 하노라

<제42수>

— 김이익, 「금강영언록」 —

* 극중일월: 가시 울타리 속에서 갇혀 세월을 보냄.

* 찬 재: 차갑게 식은 재.

* 창오산: 중국 순임금과 그의 두 왕비가 죽은 곳으로, 여기서는 정조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관련되어 있음.

* 겉풍신: 겉모습.

* 일배수: 한 잔 속의 물.

(다)

평소에 촉나라의 남쪽은 항상 비가 많이 오는데, **개**는 **해**를 보
면 **짓는**다고 하였다. 개는 **해를 보고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과 다름을 보고 짓는 것이다. 이 개는 촉나라에서 태어나고
촉나라에서 자라서 다만 촉나라의 **하늘**만 보았을 뿐이고, 촉나라
이외의 하늘은 보지 못해서 오직 촉나라의 하늘에는 항상 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촉나라 밖에는 늘 해가 있다는 것은 모른다.
그러니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이고 해가 떠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곧 이상한 것이니, 이
상한 것이면 그것을 짓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보면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고, 어두컴컴함이 일상
적인 것이다. 일상적인 것은 눈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해지니 마
음이 스스로 편해지는 것이다. 그 그늘이 점차 열리고 해가 넓게
구르면서 눈앞에 지나감이 더욱 드물게 되고 차례로 익힌 것이
아니니, 마음에 스스로 놀라게 되고, 놀라니 어찌 짓지 않겠는가.
(중략)

촉나라의 기후가 항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다면 곧 개는 해
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비를 짓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
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었다면 곧 사람들은
선을 짓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악을 짓었을 것이다.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비가 항상 오는 것이고 **악을 항상 행하는**
것뿐이다. 평소에 촉나라의 하늘에서 **구름**이 끼고 흙비 내리는
날씨를 다소 뜸하게 하고 비가 늘 내리지 않게 하며, 한 세대의
날씨를 파악하여 괴이하고 어두운 기운을 크게 끌어버리고,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한다면, 곧 해를 보고 짓고 올바름을 보고 짓어
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함께 끊어질 것이다.

오호라, 해를 보고 짓는 개는 촉나라의 날씨에 있고 사람의 힘
이 미칠 바가 아니나, 올바름을 보고 짓는 습성은 **군왕이 한번
마음을 바꾸고 옮기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신하가 이 글을 짓는
것은 하늘 가운데 해가 어두운 흙비에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
고, **올바름을 보고 짓는 개들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끊어
지게 하고자 함이다.

— 홍성민, 「촉견폐일설」 —

21. (가) ~ (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감탄사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⑤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2.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화자는 자연물을 통해 봄을 맞이하는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 : 화자는 아이들에게 농사일에 대한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 화자는 노래를 부르며 노동 후의 상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 화자는 산수에서 소일하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 화자는 사계절의 정취를 모두 누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3. (가) ~ (다)의 소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달’은 (다)의 ‘해’와 달리 화자에게 흥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 ② (나)의 ‘두루미’는 (가)의 ‘어조’와 달리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다.
- ③ (가)의 ‘흰 눈’은 화자가, (다)의 ‘구름’은 글쓴이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을 가리고 있다.
- ④ (가)의 ‘휘파람’과 (나)의 ‘헛소리’는 모두 세상을 향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
- ⑤ (나)의 ‘바다’와 (다)의 ‘하늘’은 모두 탈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대부들은 자신이 머무르는 특정 공간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그에 대한 소회, 유학자로서의 지향 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가)에서는 향촌에 은거하는 화자가 생계를 유지하며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섬으로 유배된 화자가 그곳에서 느끼는 다양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넉넉지 않’지만 ‘서러운 줄 모’른다는 점에서, 화자가 향촌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가)에서 ‘새 술’을 마신 후 ‘미끼 없는 낚싯대’로 고기를 잡는다는 점에서, 화자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나)에서 ‘죄명’을 진 채 ‘극중일월’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유배지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임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나)에서 ‘조개 등’만큼 좁은 섬을 ‘세상의 넓은 곳’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유배지에서도 백성을 돌봐야 한다는 유학자로서의 사명감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가)에서 ‘정사’를 ‘돌보시는’ 임금에 대한 걱정을, (나)에서 ‘자식’처럼 여기던 ‘은덕’에 대한 감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화자가 유교적 충의 사상을 따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25.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다)는 낫선 것을 보면 짓는 축나라의 개와 관련된 고사(古事)를 통해, 사람들이 그릇된 습성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악을 일상으로 여기는 당시 세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군왕이 부정적 현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① ‘해를 보고 짓는’ 축나라의 ‘개’는 선을 꺼리는 사람의 모습을 빗댄 것이겠군.
- ② ‘악을 항상 행하는 것’을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악을 따르는 것에 대한 우려이겠군.
- ③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방안이겠군.
- ④ ‘군왕이 한번 마음을 바꾸고 옳기’면 그릇된 세태를 바로잡을 수 있겠군.
- ⑤ ‘올바름을 보고 짓는 개들의 소리’가 있는 ‘이 세상’은 생소하다는 이유로 선을 배척하는 부정적 현실이겠군.

[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리제도’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행위를 하고, 그때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A가 집을 지을 땅을 사달라고 B에게 위임장을 써 주면, B는 A의 대리인이 되어 A의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A는 매매계약의 본인으로서 C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토지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가 대리한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A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대리행위에서의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여나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한다면,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민법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로, 본인인 A가 실제로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C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C가 B를 A의 대리인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B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A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으므로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둘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B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졌음에도, C에게 토지를 파는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표현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해당 대리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다. 셋째는 ‘대리권 소멸 후

의 표현대리’로, 이전까지는 있었던 대리권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 이미 소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본인인 A가 사망하여 B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C는 쉽게 알 수 없으며, 대리권의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것에 A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단,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무권대리행위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무권대리행위를 행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다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본인 : 대리제도에서 대리인이 대리하는 사람.

* 외관 : 보기에만 그러할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 겉모습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

* 추인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효력이 생기게 하는 의사 표시.

26. 밑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무권대리가 발생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 ③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④ 민법에서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대리제도에서 계약의 법률효과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27.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는 본인과 대리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 ② 대리인에게 준 대리권이 소멸했을 때 대리권의 외관을 정리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③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했을 때 기대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해야만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 ⑤ 특정인에게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제3자에게 말하면 특정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생긴다.

2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에게 대리제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②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③ 표현대리는 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 ④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 ⑤ 무권대리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제한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9.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례 1] ‘갑’은 2천만 원을 빌려 달라며 ‘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모두 제출하여 3천만 원을 빌린 후, 2천만 원을 ‘갑’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소유하였다. ○○은행은 ‘을’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사례 2] ‘병’은 자신의 그림을 팔아달라고 ‘정’에게 부탁하며 위임장을 작성해 준 후에 사망하였다. 이후에 ‘정’은 ‘병’을 대리하여 ‘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무’는 ‘병’의 죽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 ① [사례 1]에서 ○○은행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갑’이 추인을 하면 ○○은행에 2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 ② [사례 1]에서 ○○은행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사례 2]에서 ‘무’가 ‘병’의 사망 이전에도 ‘정’과 거래한 적이 있었다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사례 2]에서 ‘정’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가 인정된다면, ‘무’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그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사례 1]에서 ‘을’의 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례 2]에서 ‘정’의 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권대리행위라고 볼 수 있다.

30.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가게에서 파는 물건의 품질이 떨어졌다.
- ② 겨울에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고생했겠다.
- ③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 ④ 나는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떨어진다.
- ⑤ 식당은 본관과 조금 떨어져 있는 별관에 있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차별받으며 살아 온 고아인 나는 얼굴을 스크랩하는 취미가 있다.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한국에 정착한 터키인 하산은 자신과 비슷한 흉터를 지닌 나를 고아원에서 데려와 보살핀다. 하산은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고, 폐렴까지 걸려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

사람들은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했다. 하산 아저씨가 겁을 준 적도 없고 불량스럽게 대한 적도 없고 품에 무기를 숨긴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들이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다르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콧수염을 길러서, 눈이 더 깊고 그윽해서.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한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하다. 차이가 유사성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걸 안다 해도 자연스레 생겨나는 불쾌감과 공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한번 오줌을 누기 시작하면 방광이 텅 빌 때까지 멈추기 어렵듯이 타인에 대한 혐오감은 그러한 감정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제거되거나 그 혐오감을 정당화할 적당한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 말을 한 사람은 행복했던 자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행복한 자들이라고 한다.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이들, 혹은 강보에 싸여 어섯눈*을 뜯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아니 어머니 배 속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생명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경멸해도 좋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생명체들은 하산 아저씨를 보고 까르르 웃었다.

(중략)

나는 스크랩한 얼굴들을 재배열했다. 흔히 한국인의 전형이라 여겨지는 얼굴들을 기준 삼아 가운데 두고 그와 비슷한 얼굴들을 사방에 배치하는 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몽타주와 비슷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나는 우연의 효과를 노리지는 않았다.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작업이었다. 나는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지도를 만들 생각이었다. 얼굴들은 자신의 옆에 붙은 얼굴과 유사해야 했다. 아주 작은 차이만 있으면 된다. 코가 조금 더 높거나 낮거나, 눈이 조금 더 깊거나 얇거나, 광대뼈가 조금 더 돌출했거나 주저앉았거나, 피부가 조금 더 밝거나 어둡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선택**하는 **얼굴**은 기준점이었던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과는 판판이 되었다. 이걸 열 살짜리 아이가 열다섯 살짜리 친구를 지냈는데, 그 친구에게 스무 살짜리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에게는 서른 살짜리 친구가 있었으며…… 그래서 결국 열 살짜리 아이가 백 살 노인 친구가 된다는 농담과 비슷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농담처럼 무례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A] 내 지도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기도 했으며 아랍인이 되기도 했다.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인이 되기도 했고 유럽인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통나무집에 거주하기도 했으며 북극에서는 이글루를 지었고 파타고니아에서 목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반얀 나무 그늘 아래 해변에서 잠들었고 짙이 깔린 정글의 오두막에서 잠들기도 했다. 남십자성과 북십자성을 동시에 볼 수 있었고 사막과 바다를 동시에 거닐었으며 낙타와 야크를 타고 돌아다녔다.

나는 완성된 지도를 하산 아저씨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정육점에 갔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오래도록 자신의 정육점을 바라만 보다 돌아왔다. 그리고 숨을 곳을 찾는 사람처럼 집 안을 안절부절못하며 헤집고 다니더니 격렬한 육체노동을 마친 사람처럼 지쳐서 잠들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더듬었고 그의 가슴팍이 불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금식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물조차 마시지 않았다. 그의 메마른 입술은 갈라졌고 콧수염은 윤기를 잃었다. 나는 하산 아저씨의 머리맡에 완성된 지도를 놓고 그가 기도 시간에 맞춰 깨어나길 기다렸던 것이다. 기도하기 위해 일어난 하산 아저씨는 내가 만든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을 발견한 것 같구나.”

“그걸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아저씨예요. 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얼굴을요. 아저씨는 어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답고 어떤 터키인보다 더 터키인다워요.”

“한국인인지 터키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맞아요. 분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아무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림 속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림이에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꿈같은 거죠.”

“네가 아는 현실을 옮긴 거라고 생각했다.”

“안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 우정, 평화, 자유…… 그런 말은 알지만 그걸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처럼요.”

“난 너한테 그런 걸 가르쳐준 적이 없다. 하지만 네가 이런 걸 알게 될 거라고 짐작은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말이죠…… 이렇게 난폭하고 더러운 녀석이 될 줄.”

하산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를 난폭하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란단다.”

하산 아저씨는 나를 끌어당겨 자신의 **넓은 가슴팍에** 품었다. 그의 가슴팍은 단단하지 않았다.

“네 흉터는 그냥 흉터가 아니란다. 그 흉터는 역사가 날염*된 것 이야. 내 몸의 모든 흉터들 역시 내 개인사가 날염된 것들이지.”

나는 하산 아저씨가 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역사가 날염된 흉터**. 이 말은 내게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 어섯는: 지능이 생겨 사물의 대강을 이해하게 된 눈을 비유하는 말.

* 금식 기간: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음식을 먹지 않는 라마단 기간.

* 날염: 피륙에 부분적으로 착색하여 무늬가 나타나게 염색하는 방법.

3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특정 소재를 바탕으로 상상한 장면을 나열하고 있다.
- ③ 내적 갈등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 주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직접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들이 모두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 ② 하산 아저씨는 금식 기간에도 가게 일을 하느라 지쳐 있었다.
- ③ 하산 아저씨는 ‘나’가 난폭하게 된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 ④ ‘나’는 자신이 만든 지도를 보여 주기 위해 하산 아저씨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 ⑤ ‘나’는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지도를 만들기 위해 스크랩한 얼굴들을 재배열했다.

33. **완성된 지도**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인물이 타인들의 시선을 외면하게 한다.
- ② 두 인물이 자신들의 처지에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 ③ 두 인물이 함께했던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게 한다.
- ④ 두 인물이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게 한다.
- ⑤ 두 인물이 서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은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도 있지만, 단순히 피해자로 머무르지는 않는다. 외모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주기도 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로하기도 한다.

- ①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보여 주는군.
- ② ‘나’가 ‘선택’한 ‘얼굴’이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과 달라졌다는 것은, 외모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군.
- ③ 하산 아저씨가 ‘나’를 당겨 ‘넓은 가슴팍에 품’는 것은, ‘나’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로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나’가 하산 아저씨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 ‘기다렸다’는 것은, 하산 아저씨가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나’의 흉터가 하산 아저씨의 흉터처럼 ‘역사가 날염된 흉터’라는 것은, 이들이 상처를 입고 살아온 사회적 약자임을 보여 주는군.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낯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자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미덥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고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이슬 먹고 나
이 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착하디착해서 세과슨* 가시 하나 손아귀 하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 백석, 「선우*사(膳友辭)」—

* 나조반: 나주에서 만든 자그마한 밥상. * 해정한: 깨끗하고 단정한.
* 물닭이: 물닭. 뜸부깃과의 새. * 소리개: 술개. * 세과슨: 억센.
* 선우: 반찬 친구 또는 친구에게 드림.

(나)

나는 ㉠늘 고래의 꿈을 꾸다
㉡언젠가 고래를 만나면 그에게 줄
물을 내뿜는 작은 화분 하나도 키우고 있다

깊은 밤 나는 심해의 고래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들이 동료들 부르거나 먹이를 찾을 때 노래하는
길고 아름다운 허밍에 귀 기울이곤 한다
맑은 날이면 아득히 망원경 코끝까지 걸어가
수평선 너머 고래의 항로를 지켜보기도 한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다 고래는 사라져버렸어
그런 커다란 꿈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아
하지만 나는 바다의 묵로에 앉아 ㉢여전히 고래의 이야길 듣는다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을 발견했다
농게 가족이 새 빨집으로 이사를 한다더군
봐, 화분에서 분수가 벌써 이만큼 자랐는걸……

내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있다 내일은 5마력의 동력을
배에 더 있어야겠다 깨진 파도의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겠다
저 아래 물밑을 흐르는 어뢰의 아이들 손을 잡고 ㉤쏟알같이
해협을 달려봐야겠다

누구나 그러하듯 내게도 꿈이 하나 있다
하얗게 물을 뿜어 올리는 화분 하나 등에 얹고
어린 고래로 돌아오는 꿈

— 송찬호, 「고래의 꿈」—

3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으로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서술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 ③ (가)는 대화의 방식을 통해, (나)는 독백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36. ㉠~㉤의 의미를 고려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화자가 지속적으로 고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을 통해, 고래와의 만남이 실현되리라는 화자의 막연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을 통해, 고래가 존재할 것이라는 화자의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을 통해, 화자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을 통해, 고래보다 앞서 나아가려는 화자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군.

37.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는 밥과 반찬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부정적 현실에서도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고래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희망에 대한 회의적 시선에 맞서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흰밥과 가자미와 나’를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관계로 여기는 것은 화자가 그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세상 같은 건 밖에’ 두어도 ‘좋을 것 같다’는 것은 세상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누군가’가 ‘그런 커다란 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화자가 희망에 대한 불신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나)에서 ‘깨진 파도의 유리창’을 ‘갈아 끼’우겠다는 것은 꿈을 향해 전진하려는 화자의 다짐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단이슬 먹고’ 자란 ‘외따른 산골’은 화자가 궁핍하게 살아가는 공간을, (나)에서 ‘진주의 계곡’과 ‘새 빨집’은 화자의 꿈이 실현된 공간을 보여 주는군.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역사학은 객관적 진실과 주관적 해석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어 왔다. ‘랑케’로 대표되는 실증주의 역사학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접근법은 역사가의 주관성과 사회적 맥락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콜링우드’를 비롯한 주관주의 역사학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카(E.H. Carr)’는 사료* 검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역사가의 선택과 해석이 필연적으로 주관성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로 정의하며, 역사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다.

우선, 카는 사실을 ‘과거에 대한 사실’, ‘역사상의 사실’, ‘역사적 사실’로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 대한 사실’이란 실존적 경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과거 사실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 기록된 것이다. 다음으로 ‘역사상의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한 사실을 말한다. 카는 ‘과거에 대한 사실’이 ‘역사상의 사실’로 승격되는 것은 오로지 역사가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역사가는 ‘사실에 대한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역사가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역사가는 자신의 관점과 문제의식에 따라 특정 사실에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이 여러 역사가에 의해 인정받으면 ‘역사적 사실’이 된다. ‘역사상의 사실’은 변화와 재해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특성을 띠지만,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중요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된 사실로 정태적인 특성을 지닌다.

한편 주관주의 역사학을 주장한 콜링우드에 따르면, 역사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오염되어 있어서 과학적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는 과거와 직접 대면할 수 없으므로, 역사가가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소거한 채 과거를 완벽히 재현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카는 역사가의 책임감과 상상적 이해를 강조했다. 이때 상상적 이해란 단순히 사료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과거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카의 역사관은 역사의 객관적 진실을 모호하게 만들고, 사회적 맥락에서 지나치게 상대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학을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는 역동적인 학문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 사료: 역사를 기록한 문헌이나 유물로서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

(나)

역사학에서 ‘언어로의 전환’은 역사의 연구 대상을 과거 사실 그 자체에서 과거 사실을 지칭하는 언어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의 실재를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으로, 소쉬르로 대표되는 기호학적 언어관에 영향을 받았다.

소쉬르는 언어를 ‘기표(記表)’와 ‘기의(記意)’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적인 기호 체계로 보았다. 기표는 소리로 드러나는 기호적 형식을, 기의는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말한다.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며,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기표는 기의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는 항상 간

극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언어는 개별적인 실재를 직접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포함한 ‘가족 유사성’을 표상한다고 주장했다. 가족 유사성이란 특정 집단에 속한 각 대상이 본질적 속성들을 동일하게 가지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인 유사성을 통해 하나의 범주로 묶일 수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개별적인 꽃을 ‘꽃’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개별적인 실재 그 자체가 아니라, 꽃으로 불릴 수 있는 부분적인 유사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재의 완전한 표상은 불가능하고, 언어가 추상적일수록 이러한 왜곡은 심화된다. 따라서 언어는 실재를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점에서 ‘지시적 불투명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 특히 문헌 사료는 저자가 실재를 언어화한 기호 작업의 산물이므로, 과거의 실재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저자의 의미화 과정을 중시하여, 당시까지 사료라고 불리던 모든 자료를 텍스트로 재개념화했다. 여기서 텍스트란, 단순히 기록된 글을 넘어 역사가들이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역사학 자료였던 문서뿐만 아니라 그림, 낙서, 조각, 의복 등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텍스트로 망라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확장했다.

한편 텍스트는 그 시대의 언어적 관례와 규범에 따라 작성되므로, 저자가 속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 이렇게 텍스트가 의미를 생산하고 조직하는 방식이나 일련의 규칙을 ‘담론’이라고 한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담론화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위대한 업적으로 찬양받기도 하지만, 식민지 침탈과 원주민 학살의 서막을 연 것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따라서 담론은 특정 입장을 중심적인 가치로 만들기도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권력 구조나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표상: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냄.

3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 역사가의 주장을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조망하고 있고, (나)는 특정 관점을 반박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특정 역사가가 주장한 주요 개념을 유형별로 언급하고 있고, (나)는 특정 관점의 등장이 해당 분야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는 특정 역사가의 주장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나)는 특정 관점의 장단점을 다양하게 비교하고 있다.
- ④ (가)는 특정 역사가의 주장이 변화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나)는 특정 관점의 주요 내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역사가의 주장이 가진 한계와 의의를 제시하고 있고, (나)는 특정 관점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한 후 그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9. (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역사상의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이 승격된 것으로 변화와 재해석이 어려워 정태적이다.
- ② (가): ‘역사적 사실’은 ‘역사상의 사실’이 여러 역사가에 의해 역사적 중요성을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 ③ (나): ‘가족 유사성’에서 비롯된 언어의 ‘지시적 불투명성’은 언어가 실재를 표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 ④ (나): ‘언어로의 전환’에 따라 사료가 텍스트로 재개념화되면서, 역사학의 연구 범위는 역사가가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 ⑤ (나): ‘담론’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입장을 중심적인 가치로 만들기도 하고, 사회적 맥락과 관련하여 권력 구조나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40.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A는 역사서가 ‘기의 없는 기표들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고, 과거 사실의 객관적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역사서에는 저자가 부여한 절대적 의미란 존재할 수 없으며, 역사적 의미는 독자의 주관적 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 B는 역사학 연구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야 하며, 도덕적 평가나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역사 서술에서는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역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역사가의 필수적 과제라고 보았다.

- ① <보기>의 A는 독자의 주관적 해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의 ‘카’는 역사가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는 역사적 의미의 변화 가능성에 동의하겠군.
- ② <보기>의 A는 역사서를 기표의 단순한 조합으로 여긴 점에서, (나)의 ‘비트겐슈타인’은 실재의 완전한 표상이 어렵다고 본 점에서, 이들 모두는 언어적 서술의 한계성에 동의하겠군.
- ③ <보기>의 B는 역사의 가감 없는 전달을 위해서, (가)의 ‘카’는 과거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이들 모두는 역사가의 자아를 소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겠군.
- ④ <보기>의 B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역사학 연구를 강조한 것에 대해, (가)의 ‘콜링우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겠군.
- ⑤ <보기>의 B가 과거 사실의 객관적 복원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에 대해, (나)의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근거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겠군.

41.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가는 사실을 해석이 불가능한 실체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역사가는 사실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 ③ 역사가는 역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역사의 고정적 의미를 거부해야 한다.
- ④ 역사가는 역사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합의된 하나의 해석을 지향해야 한다.
- ⑤ 역사가는 역사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역사가로서의 주관성을 획득해야 한다.

42.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일과 더불어 생김.
- ② ㉢: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
- ③ ㉣: 수량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 ④ ㉡: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 ⑤ ㉣: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냄.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백봉과 백선은 아버지 백활수가 전쟁 포로로 호국에 잡혀가자 망월대사 밑에서 수련하고, 화룡은 부모를 여의고 병법을 익힌다. 한편 호국이 침범하여 세자를 붙잡아 가자, 송나라 황제는 백봉을 원수로 삼아 백선, 화룡과 함께 호국을 상대하게 한다. 호국의 철남은 세장수와 대결할 때 신장을 불러 운무를 일으킨다.

원수가 장대에서 보다가 말에 올라 적진을 헤치고 들어가니 지척을 분별치 못할러라. 원수가 적진 중에 외쳐 왈

“백선은 어디 있느냐?”

백선이 답하기를

“형님은 나를 살리옵소서.”

하나 운무(雲霧) 중에 동생과 신장(神將)*을 어찌 분별하리오. 칼을 쓰지 못하고 섰더니 원수 또한 적진 금사진 팔십여 겁에 싸였는지라. 어찌 벗어나리오. 원수가 양천(仰天)* 탄식하기를

“우리 형제가 십 년 공부하였다가 이제 와 죽게 되었으니 명천(明天)은 살피사 망월대사를 오게 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더라. 망월대사가 외쳐 왈

“붕과 선아, 그 말[馬]이 정신을 잃게 하지 말라.”

하거늘 붕과 선 형제가 정신을 그제야 차려 크게 외쳐 왈

“너는 비록 짐승이나 어찌 적진 중에 싸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하고 채를 들어 희롱하니 말이 고함하고 십여 장씩 뛰어 진중에 벗어나 철남의 말을 물리치고 화룡을 찾아 데리고 돌아오니라.

또 이튿날 붕과 선이 호통 왈

“오늘은 네 목을 베리라.”

하고 달려오거늘 철남이 본진으로 향하다가 붕과 선 형제가 쫓아가매 철남이 양천 통곡 왈

“명천은 살피옵소서. 만리타국에 와 대공을 이루지 못하고 봉과 선에게 죽게 되었으니 살리옵소서.”

하며 산곡으로 들어가거늘 봉과 선이 쫓아가니 제 몸은 피하고 허인(虛人)만 보이거늘 봉과 선이 생각하되 적장 흥계에 빠진 줄 알고 도로 가고자 하니 방포일성(放砲一聲)에 불이 좌우로부터 산천을 녹이는지라.

이때 화룡이 장하(帳下)에 있다가 원수 간 후에 화광(火光)이 충천함을 보고, 말을 놓아 동구에 들어가 화광에 싸였더니 마침 철남이 불을 피하여 마주 나오거늘 세 장수가 일시에 달려들어 목을 치니 철남은 아니요, 초인(草人)*이라. 이윽고 불이 점점 들어오거늘 밤은 이미 삼경(三更)이라. 어찌할 줄 모르다가 생각하여 부채를 내어 거꾸로 잡고 물 수(水) 자 세 자를 쓰니 이윽고 서쪽으로 흑운이 일어나며 일진풍우(一陣風雨) 대작하여 그 불을 소멸한지라.

이때 황제가 화광이 충천함을 보고 양천 탄식하기를

“봉과 선 형제여, 봉과 선 형제여. 저 산속에 같이 녹으니 뉘로 하여금 적병을 쳐 물리치리오.”

하시고 자결코자 하거늘 종석이 여쭙되

[A] “봉과 선 형제는 그 화를 피할 듯하오니 황상은 옥체를 안보 하옵소서.”

하고 위로하더라. 오경(五更)이 되어 진중이 요란하며 한 장수가 필마단기(匹馬單騎)로 들어오거늘 송 진중에서 원수가 오는가 하여 반갑게 보니 원수가 아니요, 철남이 용천검을 들고 호통 왈

“송나라 황제는 빨리 항복하라.”

하며 장사 십여 명을 베고 회행하거늘 종석이 죽기로써 막으나 어찌 당하리오.

이때 봉과 선 형제, 화룡이 불을 피하여 오는 길에 적진에 들어가니 철남이 간데없거늘

“이놈이 우리를 유인하여 산곡으로 보내고 황제 계신 데 갔도다.”

하고 급히 오더니 적진 중에서 소리하여 왈

“원수는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니 이는 세자라. 수족을 요동치 못하게 하였거늘 원수가 세자를 데리고 본진으로 돌아올새 철남이 삼지창을 들고 황상을 겨누며 항복하라 하는 소리 진동하는지라. 황상이 용포(龍袍) 자락을 떼어 땅에 놓고 통곡하거늘 봉과 선이 호통하며 왈

“철남은 우리 황상을 해치지 말라. 봉과 선 형제 들어오노라.”

달려들어 칠성검을 번듯하여 철남의 창 든 팔이 땅에 떨어지거늘 철남이 경황(驚惶)하여 본진으로 달아나더라.

(중략)

봉과 선이 내달아 외쳐 왈

[B] “개 같은 호왕은 들으라. 너는 강포(強暴)만 믿고 범람(汎濫)한 뜻을 두매 우리 황제가 진노하사 나를 보내 네 죄를 물으라 하시기로 왔나니 나의 부친을 모시고 내게 와 항복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의 나라를 소멸할 것이니 빨리 항복하라.”

한대 호왕이 더욱 분노하여 이를 갈며 달려들어 싸워 십여 합에 이르러 승부를 정하지 못하매 호왕이 당치 못할 줄 알고 본진으로 달리거늘 백봉이 생각하되 ‘적진 중에 무슨 흥계 있도다.’ 하고 적진에 들지 아니하고 본진으로 돌아오니라. 호왕이 진문을 굳게 닫고 여러 장수를 불러 왈

“봉과 선은 임의로 잡지 못하리라.”

하고 즉시 활수를 잡아내어 진중에 수급하고 호령 왈

“네가 항복 아니하면 네 자식과 함께 죽이리라.”

한대 활수가 분노 왈

“우리 삼부자가 다 죽을지언정 어찌 네게 항복하랴.”

하더라. 봉과 선 형제의 마음에 ‘한칼로 적진을 소멸코자 하되 진중에 들어가 어찌 옥석을 분별하리오.’ 하며 통곡하더라.

— 작자 미상, 「백봉선전」 —

* 신장: 무속 신앙에서 용맹스러운 장군에 해당하는 무속 신.

* 양천: 하늘을 우러러 봄.

* 초인: 짚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물건.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활수’는 항복하라는 ‘호왕’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
- ② ‘철남’은 부채로 흑운을 일으켜 번져오는 불길을 끈다.
- ③ ‘화룡’은 ‘철남’이 불길을 피해서 마주 나왔다고 착각한다.
- ④ ‘황제’는 ‘백봉’과 ‘백선’이 ‘철남’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 ⑤ ‘백봉’은 운무 때문에 적진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한다.

44. [A]와 [B]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유보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에 대한 상대의 반박을 차단한다.
- ③ [B]는 [A]와 달리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여 상대가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유도한다.
- ④ [B]는 [A]와 달리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현재 상황에 관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다.
- ⑤ [A]와 [B]는 모두 상대가 입을 피해를 언급하여 상대가 제안에 응하도록 설득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국난을 극복하고 가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과정이 함께 드러나는 영웅 소설이다. 다만 다른 영웅 소설과 달리 여러 영웅이 등장하고, 적대자의 능력도 뛰어나며, 영웅과 적대자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각각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① 백봉, 백선, 화룡이 함께 철남과 대결하는 것에서 적대자와 대결하는 다수의 영웅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철남이 백봉, 백선, 화룡을 유인하고 황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에서 적대자의 뛰어난 지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백봉과 백선이 적진에서 세자를 구출하고 위기에 처한 황제를 구하는 것에서 국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백봉에게는 망월대사가, 철남에게는 신장이 있다는 것에서 영웅과 적대자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를 각각 확인할 수 있군.
- ⑤ 백봉이 대결 도중 후퇴하는 호왕을 쫓지 않고 활수에게 향하는 것에서 가족을 위기에서 구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